

바늘구멍 뚫은 교사, 알고보니 이사장 손녀

광주·전남 사립학교 임원, 친·인척 106명 교직원 채용

광주, 20명중 9명 특채... 전남, 5촌조카·6촌제수 근무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20명이 해당 학교 교직원 등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학교법인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8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비례대표) 의원이 7일 광주·전남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5~2015년 임용된 법인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등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지난 10년간(2005~2015년) 채용한 법인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은 교원 14명, 직원 6명 등 20명으로 나타났

다. 20명 중 9명은 공개경쟁이 아닌, 특별 채용 형태로 이뤄졌다.

광주 고려학원의 경우 이사장 자녀가 행정실장과 교사로 채용됐으며 남암학원도 이사장의 조카가 동아여중 사무직원으로 특채돼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문학속도 이사장 자녀(보문고 행정실장)를 특채했고 우산학원(대성여고)은 이사장 조카를, 우성학원(대동고)은 이사장 자녀를 각각 사무직원으로 특채해 근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원학원에서도 이사장 자녀 2명과 이사장 동서 1명을 명진고 교원으로 채용했

고 반대학원(광덕중·고)도 법인 이사장 조카·조카며느리, 법인 이사의 자녀가 공개경쟁 형태를 거쳐 교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 중에는 1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명의 최종 선발자(당초 선발 예정 인원 8명)에 포함됐거나 7.3대 1의 경쟁률 속에 '최후의 1인'(선발 예정 인원 4명)이 된 경우도 있었다.

설월학원에는 이사장 손자가 9명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동일전자정보고 교사로 선발됐고 송암학원도 전 이사장 손녀, 현 이사장 배우자가 각각 특채, 공개경쟁으로 채용돼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추호학원(금호고)과 춘광학원(경신중)에서도 이사장 자녀가 각각 교원·행정실장 등으로 특채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전남에서도 학교법인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8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덕수학원의 경우 이사장 배우자와 아들, 며느리가 이사와 교사로 근무 중이며 덕인학원은 이사장 아들, 아내의 조카도 법인 소속 중·고교 교사로 있다. 학당학원의 경우 이사장 배우자, 4촌동생·5촌조카·6촌제수·6촌동생이 여수정보과학교 교장·행정직원·교사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이상일 의원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채용한 교직원 중에는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임용될만한 인재도 있었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억 속 '미니스커트 길이 재기' 재연 '제12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7일 '추억 & 어울림'을 주제로 개막.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 총장로 일원에서 오는 11일까지 펼쳐진다. 이날 광주극장 인근에 마련된 '추억의 거리'에서 배우들이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억의 7080 총장축제→추억의 총장축제

광주 동구 "70·80년대 특정 이미지" 명칭 변경 검토

'추억의 7080 총장축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광주시 동구가 '추억의 7080 총장축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7080'이라는 명칭이 70·80년대라는 시대와 세대를 특징짓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추억의 7080 총장축제'의 명칭을 '추억의 총장축제'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9월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제대 정강한 교수팀에게 '제12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 평가요약'을 맡겼다.

정 교수팀은 만족도 등 축제 전반에 걸친 평가와 명칭 변경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오는 11월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구가 명칭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추억의 7080 총장축제'라는 명칭에 포함된 '7080'이라는 단어가 시대적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진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그동안 총장축제조직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제기돼 왔고, 동구도 최근 들어서는 '추억의 7080 총장축제'와 '추억의 총장축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축제는 지난 2004년 동구가 1970~80년대 호남의 정치 1번지이자 문



화·인권의 중심지로 명성을 얻었다는 점과 당시 총장로와 금남로가 젊음과 낭만의 거리였다는 점에 착안, '추억'을 매개로 만들어졌다. 축제를 통해 최고 전성기였던 70~80년대 동구를 되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의미다.

동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총장축제를 70~80년대 문화만을 느낄 수 있고, 그 당시 세대들만 향유하는 축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총장축제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문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으면서 세대와 계층, 지역을 뛰어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광주 총장로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총장축제는 지난 2008년 '추억의 7080 총장축제'로 명칭을 변경, 제2의 날갯짓을 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 해질 18:08 | 달출몰 02:05 | 달몰림 15:35

구름간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15/25	보성	구름많음	13/24
목포	구름많음	15/23	순천	구름많음	16/25
여수	구름많음	17/23	영광	구름많음	12/24
나주	구름많음	12/25	진도	구름많음	14/24
완도	구름많음	15/24	전주	구름많음	15/24
구례	구름많음	13/25	군산	구름많음	14/24
강진	구름많음	14/24	남원	구름많음	12/25
해남	구름많음	13/24	축산도	구름많음	17/21
장성	구름많음	11/24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부	면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5
	앞바다	북동~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면바다(동)	북동~동	1.0~1.5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서~북	0.5~1.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40
- 빨래: 70

주간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9(금)	구름	10(토)	구름	11(일)	구름	12(월)	구름
15/21		11/20		11/20		11/21	
						11/22	
						10/23	
						11/23	

지방교육재정 극복 시민운동 출범

광주시의회 등 78곳 참여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시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앞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비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압류하고하자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광주시민운동본부에는 광주시의회와 지역교육·시민·경제단체 78곳이 참여했으며 광주경찰청·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광주교총 등 17개 단체가 공동 대표단을 맡기로 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광주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대표자회의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대통령 복지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위원을 전연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출범식을 계기로 서명운동, 국민청원운동 등 전국연대사업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홍하씨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범인이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광주교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홍하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직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주지는 교도소가 아닌 기존처럼 전남대병원으로 제한되며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으로 동일하다.

이씨는 교비 횡령 등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지난 8월 교도소내 치료병실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와 턱뼈 등을 다쳐 병원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 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www.maxo.co.kr

◆강안본점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서부본점 053)253-44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김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대전동구본점: 대한보청기(주) 우송대학교 언어청각학과 공동 연인원임 및 연구 협력기관입니다.

* 상기본사명은 전국 어느 지점을 가나 동일한 시스템(제품·가격·서비스)을 제공합니다.